

우리문화

2011.03 Vol. 224 March



문화 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빠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11. 03 Vol. 224 March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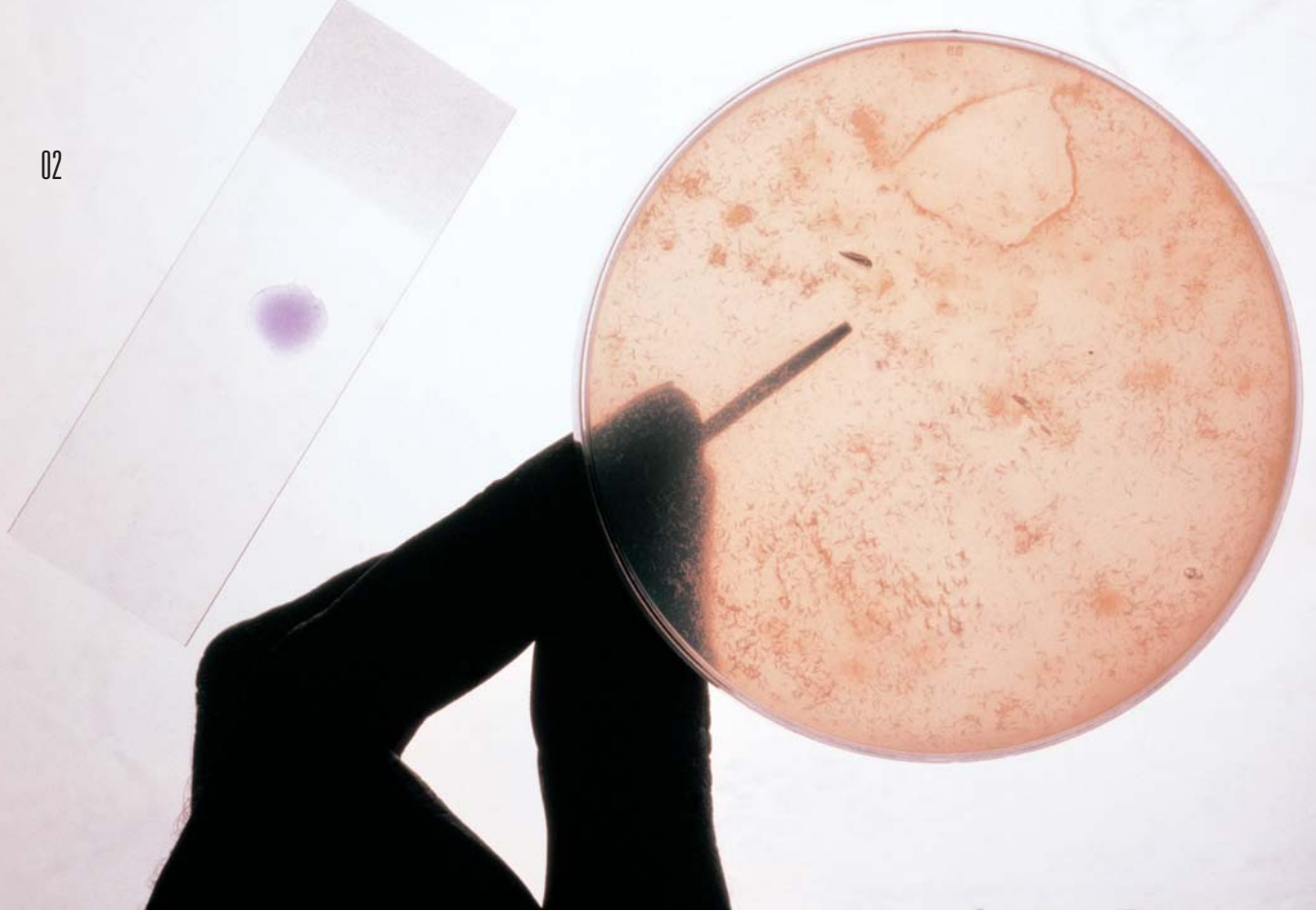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02 칼럼	지구촌 생명공동체의 공존
06 연합회 소식	2011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10 당동 반갑습니다, 문화원	경남 창원문화원
14 문화원 엿보기	대전서구문화원사 준공사례
18 생생 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응모기_부평문화원
22 그들만의 저녁식탁	우리는 왜 페이스북을 하는가
28 문화원 돋보기	
31 연합회 리더	우리 문화 소식
32	원장동정



지구촌 생명공동체의 공존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동물 습격과 그 해결

미생물과 타 생물 사이의 생명을 건 싸움은 지구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생물 진화의 경로에 관여해 왔다. 미생물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감염과 방어라는 전쟁은 항생제 발견으로 20세기에는 거의 인간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장기적이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다양한 항생제에 저항하는 미생물의 등장으로 다시 인간이 위기에 몰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미생물이었고, 최후의 생명체도 미생물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와 치료적 공격이라는 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과 식물은 물론이고 미생물도 그 입장은 크게 다를 수 없다. 최근 한반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하는 바이러스의 습격에 의하여 사람과 동물이 큰 고통을 겪

있고, 현재에도 그러한 고통이 진행 중에 있다. 물론 그것은 어제 오늘의 감염사태가 아니며, 한반도 특유의 상황만도 아니다. 우리의 우려는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반복적이며, 국지적 발생 수준을 벗어나 때로는 세계적 유행병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 피해도 엄청나서 가히 재앙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나 동·식물이 겪는 그러한 바이러스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생명체-미생물 간 상호관계 이해

바이러스 공격이라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지구생태계는 지구 환경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의 존재 양식 혹은 네트워크 체계라 할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환경과 생물 간 상호관계와 더불어 동물과 식물, 미생물 간 상호작용을 이룬다. 환경과 생물, 생명체들 사이는 서로 경쟁하거나 협조할 수 있고 때로는 무관 할 수도 있다. 그 상호작용 체계는 단순할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복잡다기하고 다층적일 수도 있어서 완벽한 이해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지구생태계 내에서 생명체 상호작용은 식물과 식물 간, 동물과 동물 간, 식물과 동물 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매개 고리는 미생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구체적으로, 미생물과 식물 간, 미생물과 동물 간 외에도 미생물과 미생물 간에도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미생물은 주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외에도 사람의 시각으로 인지되지 않는 크기의 식물과 동물을 포함할 수 있다. 미생물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은 거의 경쟁이나 제어를 의미하며, 다른 생명체에게 감염을 일으켜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자연 생태계에서 협조나 협력 혹은 공존하는 미생물의 역할이 오히려 실제보다 덜 알려져 있다. 물론 같은 시공에 존재하여도 미생물이 다른 생물에 대하여 무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구생태계 내 생명체 간 상호작용의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생명체를 이용한 생물학적 조절이나 방제도 가능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원리로서 경쟁이나 협력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 환경에 대한 화학적 혹은 물리적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과 동물, 식물 등의 몸 혹은 생체 조직이 미생물을 인지하여 소통이 이뤄지면, 그들은 공격과 방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을 야기하거나 혹은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바이러스에 의한 한반도 습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 혹은 병증이 인간 삶에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듯이, 그것은 동물과 식물에게서도 그러하다. 때로 바이러스가 야기하는 동물과 식물 질병은 해당 생물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삶까지 위기로 몰아가기도 한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한반도 생태계에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와 있다. 그 직전에는 세계적 유행병이 된 신종인플루엔자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적지 않은 숫자의 희생자를 내기도 하였다.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 소식이 알려져 가축과 축산 농가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큰 수심을 안겨 준 구제역은 오래된 바이러스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발굽을 가진 동물에 발병하는 구제역은 이번의 경우에 소와 돼지 등과 같은 가축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구제역이 전국에 창궐하여 방역을 위하여 수백만 마리의 돼지와 소가 살처분 되었다. 급박하고 허술한 대규모 가축매물 처리는 추후 토양이나 하천 오염과 같은 환경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차츰 시름을 더해가는 중이기도 하다. 이전과 달리 이번의 구제역 사태가 재앙 수준까지 이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것은 추운 날씨뿐 아니라, 초기 대응의 허술함과 백신 투여 결정에 대한 정치적 판단력의 미숙함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된 것은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부족과 더불어 방역 실행의 지연, 방역정책의 혼선 등이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산업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의사의 절대적 부족과 관계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위상이 낮은 것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2월 29일 전북 익산과 충남 천안에서 첫 발생이 알려진 조류인플루엔자는 구제역 사태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 피해 숫자는 구제역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금류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류인플루엔자는 1996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2002년, 2006년, 2008년에 이어 이번에 5번째 발생한 셈이다. 피해 대상이 된 닭과 오리는 모두 살처분으로 정리된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 더 큰 우려는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감염이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피해가 가축뿐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심각하게 미칠 수 있다. 고병원성의 경우, 한때 홍콩과 베트남에서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전의 약병원성과는 달리 이번에는 고병원성이라는 점이 더 큰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구제역 역시 인수공통감염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인체 피해는 미약하여 세간에서는 인체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인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바이러스 감염 사태 해결 방안

최근 한반도에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 피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산업동물 전문 치료 수의사의 충분한 인력 확보이다. 이번과 같은 대량 발생의 경우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숫자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관련 인력 배양에 따른 충분한 숫자의 전문 수의사 확보는 가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역, 진단, 치료 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숫자는 선진국의 그것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현재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청계로 위상을 격상시켜야 하며, 동시에 연구 파트를 증원하여 독립기관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부 산하 체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위의 공무원이 하위의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신속히 이해하거나 따르기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 의한 빠른 변신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힘을 모아 지혜를 짜고,
첨단과학 정보를 동원하여 바이러스의 약화와
제거를 향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거기에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효능 백신과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 뿐 아니라 환경과 문화,
의식의 개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의 독립 문제는, 검역원이 주로 급히 해결해야 하는 방역 문제에 집중하고, 연구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의 연구 진행이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 수립에 전문성을 모으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서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기관의 국제화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예처럼 우리나라에도 레벨 3~4급 대동물실험실 시설이 국가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시설의 확보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뿐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 개발을 포함하는 신약개발 분야에도 필수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아울러 첨단 과학지식을 근거로 하여 바이러스 질병에 강한 다양한 가축 종의 육종도 해당 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축을 직접 기르는 축산업자를 상대로 한 교육 체계 마련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 피해가 해당 축산농가 뿐 아니라 인근 농가를 포함한 전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필요하다. 그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보다 체계화되고 그 강도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가축 시설 환경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친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체로 넓은 국토를 소유한 축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좁은 면적에 밀식하여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방목에 대한 제한성으로 인한 가축의 건강 약화, 주위 환경의 비위생성 등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의 확보 혹은 적절한 사육 개체 수 제한이 필요하다. 현

재 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중적 대형축산 체계를 분산형, 유기농으로 전환해 가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철새에 의한 감염설이 유력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 오랫동안 새의 주요 도래지였던 서해안의 갯벌과 육지 내 강변이 근년에 대대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철새들이 축산농가 주변으로 와 머물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폐사된 청둥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은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급증해 가는 육식 문화의 과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습격에 의한 피해 동물이 소, 돼지, 닭, 오리 등과 같은 가축으로서 주로 육식 음식의 자원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 수요의 과도한 급증은 당연히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성인병을 야기할 수 있고, 가축의 대량 사육을 불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과 축산동물이 바이러스 습격에 맞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히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 의한 빠른 변신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힘을 모아 지혜를 짜고, 첨단과학 정보를 동원하여 바이러스의 약화와 제거를 향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거기에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효능 백신과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 뿐 아니라 환경과 문화, 의식의 개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인간은 지구촌 생명 공동체의 공존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시대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김사열 대구동국대학교문화원장



1,300여명의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만들어 재능기부 펼친다.

마을자원과 어르신문화로
마을개발사업의 새로운 전형 제시



어르신사업이 다년간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어르신들의 예술적 기량이 성숙해지고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면서,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을 조직해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하 어르신사업)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었다. 지난 2~3월 사업공고와 선정심사 및 컨설팅워크숍을 거쳐, 149개 지방문화원에 202개 사업(교부총액 20억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지난해의 170개 지원사업과 비교하면 약 20%정도 늘어났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사업공모를 두달정도 앞당겨 시행하여 3월중순에는 각 지방문화원에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어르신사업은 노인을 사회에서 은퇴한 소극적인 세대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즐기는 '문화생비자'의 새로운 계층으로 사회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고령화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나눔봉사단', 2011년 문화예술 트렌드를 선도

어르신사업이 다년간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어르신들의 예술적 기량이 성숙해지고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면서,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을 조직해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형

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의 하나로 발표한 '착한예술'과 맥을 같이 하는 문화현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26개 문화원에서 관내의 지역축제나 읍면동단위, 양로원 등 문화소외시설을 찾아다니며 공연활동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공주문화원의 문화나눔봉사단 '논두렁 밭두렁'의 경우 한국민속예술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등 굴직한 행사의 개막식 공연에 초청되었다. 동대문화원의 '왕언니클럽'은 문화나눔봉사활동이 소문이 나서 TV 프로그램에 여러번 출연하기도 했다. 금년의 경우 전국 42개 문화원에서 1,300여명의 어르신들이 1천회의 문화나눔봉사단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인형극단, 대중음악연주단, 전통공연, 풍물 등 공연내용도 다양하고, 금년에는 전통과 현대음악이나 음악과 미술의 결합 등 각각의 장르가 결합하는 종합예술단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주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관내에 봉사단 활동이 집중된 반면, 금년에는 서울 인사동(남인사마당 공연) 등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공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을사업’의 새로운 전형을 만든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르신 마을문화전승’은 마을자원과 어르신의 문화를 소재로 세대간, 지역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진도, 부안문화원 등에서 마을생활사박물관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정부지원 마을개발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마을자원과 어르신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 중심 사업이다. 마을이라는 공간은 인간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이전시기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문화공간이며, 이들의 공동체적 삶은 지역문화를 규정하는 현장이고 근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단위이지만 마을이라는 공간을 배제하고 설명되는 지역문화 현상은 거의 없다는 것이 지역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유지시켜 온 것은 그 지역 어르신들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 기록물, 구술, 그들의 삶속에서 유지되는 공동체문화가 향토

문화,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다. ‘노인 한명이 죽으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거나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듯이 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 그들이 삶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랄 수 있는 지역문화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의 문화자원과 어르신들의 문화콘텐츠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전승하는 ‘어르신 마을문화전승’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사업의 환류와 선순환 구조 마련

금년 어르신사업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공모제도의 개선에 있다. 이 사업이 매년 공모제도로 운영되면서, 사업선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있었다. 그러나 공모제도가 개선없이 시행되면서 사업의 과년도 성과가 무시되고,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차별 계획에 대한 전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과년도 사업의 개량적 성과와 참여자의 만족도,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선정에 반영했다. 또한 단기·중기전략은 각각의 프로그램과 어르신 수혜자가 환류하고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사업인 '어르신문화학교'는 연차별 발전전략에 따라 3년이내에 문화나눔봉사단이나 동아리활성화, 어르신강사 등의 사업으로 발전하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

문화원실무자를 컨설턴트로 양성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정책연구, 문화예술기획자, 평가 및 조사, 지역사 등의 전문가 5명정도로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컨설턴트들은 컨설팅디자인, 정책연구 및 성과제고, 핵심사업 컨설팅 등에 참여하게 된다. 금년의 컨설팅단 운영전략은 이 사업의 사회적 이주화와 인지도 확대에 집중하여 우리나라 노인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사업으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이다. 특히 마을문화전승(이전 의 생활문화전승)이나 스타프코그램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하게 된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관광이나 체험학습 등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다년간 이 사업의 운영한 문화원 사무국장 등 현장경험과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갖춘자를 '내부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이다. 내부컨설턴트들은 지난해의 외부 컨설턴트처럼 문화원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문제점 해결, 실무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전국 지방문화원에서 202개 사업추진

금년에 선정된 202여개의 사업은 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된다.

△어르신만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며, 이 사업의 대표격인 <어르신문화학교>가 전체의 절반인 100개의 사업을 차지한다. 또

△어르신이 사는 동네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인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들이 공연단을 만들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어르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문화동아리활성화>

△마을의 공동체적 문화자원을 세대간, 지역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어르신 마을문화전승> 사업 등이 추진된다.



창원문화원

문화원에 왜 대학이?
창원문화원 박물관 이야기

티동,

반갑습니다



광복절 기념 백일장 대회



향토사 대중화 사업 - 삼국유사 길 백월산을 아시나요 교육

7일, 우리문화팀의 창원문화원 취재를 위한 방문과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워크숍 일정이 겹쳤다. 창원문화원과 연합회 사무국의 열띤(?) 조정 끝에 국장은 문화원에 남고 간사는 서울로 올라와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정이 겹칠 수 있나 하고 서로 아쉬워하며 웃었지만 사무국 인원이 많지 않은 문화원 실정 상 그럴만한 일이기도 했다.

봄을 재촉하는 3월, 바쁜 마음들이 이렇게 길을 가른다. 우리문화의 창원 취재, 이른 새벽 창원행 ktx 안의 설렘이 아침을 재촉한다.

향토를 사랑하려면 향토를 알고, 나라를 사랑하려면 역사를 알고

“우리 문화원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라면 1991년에 시작된 박물관이다. 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대학을 처음 오픈하고 전국의 각 시도 대학 박물관에서 줄줄이 박물관대학을 오픈했다. 문화원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가 적극 건의했고 진행하게 되었다. 벌써 20주년이다.

향토를 사랑하려면 향토를 알고, 나라를 사랑하려면 역사를 알아라, 이 건 신채호 선생의 말인데 그런 맥락으로 이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년이 지나고 보니 중박은 그대로지만 전국에 모든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 박물관대학은 금년에 교육기수가 40



비음산 산성 칠복제 제례 사진

기다. 총 4,130명이 수료하였다.” 어느 문화원이 그렇지 않겠나만은 자리에 앉아마자 박동백 창원문화원장의 창원문화원 자랑은 잠시 숨 돌릴 틈도 없다. 그만큼 애정과 열정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면서 서둘러 말을 들어본다. 먼 걸음을 떠나듯이 먼 시간의 길, 문화원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창원시로 승격되고 도청소재지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니 시에서는 창원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재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저하고 많이 접촉을 했지요. 그 때 창원대 사학과 교수에 재직하고 있었고 박물관장을 하고 있었습시다. 자연스럽게 문화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얘기가 되었어요. 그 때 이사로 시작, 문화원 이런저런 일에 함께 하게 되었다.” 박원장의 문화원과의 인연은 박물관대학의 처음과 맞닿아 있었다.

그래선지 사업에 대한 중심과 애정이 대단했다. “그분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다. 책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세세하게 알게 되고 관심이 많아지신다. 우리는 박물관도 없고 강의실도 없는데(세를 빌려 쓴다) 좌석 180개가 앉을 자리 없이 뽁뽁하다. 요즘 창원 우스개로 이 지역에서 뭘 하려면 박물관대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지나온다.”

도시락도 까먹고 아이에게 자랑도 하고

“사실 문화원에서 박물관대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일화로, 박물관대학을 수료한 어머니가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문화재로 지정된 탑을 보고 이것은 몇 층이고 언제 것이다, 하니 사학과 출신의 자제분들이 놀랐다고 한다.우리 답사의 식사는 무조건 도시락이다.

요즘에는 도시락 먹을 일이 흔치 않은데 우린 예산도 줄이고 추억도 쌓고 도시락 먹기를 한다. 각자 도시락을 싸와라, 처음 그랬을 때는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신다. 나눠먹으면 그보다 더한 뷔페가 없으니까. 박물관대학의 새로운 문화인 셈이다.” 문화원에서 시작했던 박물관대학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속에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문화답사도 가고 책자발간도 한다는 사실. 그 비결은 ‘방법’을 알아서라고 한다. 어떻게 봐야하고 어디를 봐야 할지 한번 배워두니 삼삼오오 모여 같은 기수끼리, 혹은 위아래 기수가 뭉쳐 전국문화재 유량을 다니는 것이다.

다른 문화원에서도 강추, 박물관대학

“앞서 말했듯이 박물관대학이라는 사업이 문화원이 하면 참 매칭이 잘 되는 사업이다. 2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보니 중점은 강사진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하느냐 그것이 사람이 모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는 것이다. 정말 문화원에서도 해볼만 하다. 문화원이 저력이란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인데 박물관대학이 전국 규모가 되고 서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전국 곳곳의 향토사를 제일 잘 아는 곳이 문화원 아닌가. 그런 면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문화원의 단발적인 문화답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그것이 박물관대학이라고 말하는 박원장이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문화원이 일이라면 박물관대학을 한번 해보라고, 방법은 언제든지 창원으로 문의하라는 박원장이다. 박물관대학, 문화원을 빛낼 수 있는 도구라고 강력추천하는 창원문화원이다.

박동백 창원문화원장



대전서구문화원사 준공사례

“대전서구문화원” 신축이야기

대전서구문화원은 1995년 개원하였는데

당시 둔산1동 주민자치센터건물 3,4층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초기와 달리 해가 갈수록 문화학교 수강생과

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되었고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문화원이 그러하듯 본원도 협소한 장소로 인해 문화원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도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고 차츰 문화원 단독원사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본원이 위치한 둔산신도시의 특성상 비싼 토지대 때문에 건물신축은 어려웠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건물 임대 또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수년간 '문화원 단독 원사' 계획은 담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살려 문화원신축과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과 관련된 수입금은 그와 관련된 곳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으며, 주차장부지에는 건축면적의 30%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원 부지확보 및 설계가 확보되면 30%의 시설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각 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주차장 운영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둔산1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인 탄방동 667번지. 주차장 부지였지만 서구에서 주차장 운영 문제로 주차장 건물을 짓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본원은 주차장건물을 활용하여 30%의 공간에 문화원을 짓고 주차장은 문화원이 운영하면 광역시와 자치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문화체육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축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4월 대전광역시에 대전서구문화원의 어려운 여건과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문화원사 신축 계획을 설명하였고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자치구인 서구에도 문

4층과 5층에 자리잡은 강의실은

20 여명 정도의 규모로 모두 7실을 갖추고 있는데

문화학교 강좌를 50~60여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아울러 세미나 등 행사장 대관으로

20%는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신축 계획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구로부터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원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시 서구 탄방동 667번지 1,952.7㎡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의 29.3%인 2,400㎡ 규모 (연면적의 70.7%인 주차장 규모 5,796㎡)로 서구문화원 원사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유일무이한 주차장전용 건축물 내 문화원 원사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였으며 총 예산은 51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15억원(30%), 시비 18억원(35%), 구비 18억원(35%)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 단독원사 건립과 관련된 일정과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2008.4.29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대전시)
2008. 6. 1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서구의회)
2008. 10. 1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공고
2008. 10- 12	설계 현상공모
2008.12- 2009. 2	실시설계 용역
2009. 3	계약
2009. 4	착공
2010. 6.11	준공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30%)	시비(35%)	구비(35%)	채권발행
계	5,106	1,532	1,787	1,787	구비 1,200
2009년도	2,500	-750	-875	-875	
2010년도	2,606	-782	-912	-912	구비 1,200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6월 11일 원사 신축 준공식을 치르고 현재 9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주요시설로는 전시실과 공연장, 향토자료실, 대강당, 강의실 등을 갖추었고 1층에 위치한 전시실은 원형의 형태이며 77평의 공간이 확보되어 1주일 단위로 전시계약을 체결합니다. 3층 향토자료실은 향후 일정 공간을 도자기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료화를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4층과 5층에 자리잡은 강의실은 20 여평 정도의 규모로 모두 7실을 갖추고 있는데 문화학교 강좌를 50-60여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아울러 세미나 등 행사장 대관으로 20%는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층은 269석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인근 대형전문 공연장과의 차별화를 꾀함과 동시에 전문가 공연이 될 수 있는 음향,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 현재 대관은 60% 정도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동 시설은 지하 1층 지상6층에 160여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는 자체 운영에 따른 수익창출이 미비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 상황으로 볼 때 원사 운영비 전액을 자력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직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 직원이 운영비 자력 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회원들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시설의 문화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 원사의 신축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기에 타문화원에서 많이 활용하여 전국의 문화원이 지자체의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송재민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 2011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 시설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번호	자치단체명 광역	기초	사업명	2011 예산
1		고양시	고양문화원 신축	468
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개·보수	345
3		양평군	양평문화원 신축	400
4	강원	동해시	동해문화원 신축	500
5		영월군	영월문화원 신축	1,220
6		옥천	옥천문화원 개·보수	128
7	충북	증평	증평문화원 개·보수	200
8		영동	영동문화원 개·보수	200
9	전북	군산시	군산문화원 신축	200
10		영양군	영양문화원 신축	740
11		합천군	합천문화원 신축	461
12	경남	통영시	통영문화원 신축	300
13		창원시	창원문화원 신축	1,499
소계 (6개 시·도, 13개 사업)				6,66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응모기 부평문화원

어르신들 우리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만나요~!

“소연양~
내년에도 인형극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이팀장~
우리 언제부터 다시 모이는 거야??”

수료식을 할 때면 언제나 아쉬움 반, 걱정 반 어르신들 이 두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물어보신다. “언제언제부터 오시면 되요~”하고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팬스레 미안해서 멋쩍게 웃어 보인다. ∴ “꽃피는 봄이 오면 개학한다고 연락드릴게요. 겨울 잘 보내시고 봄에 뽕개요.” 어르신들과 함께 한지 어느덧 삼년이다. 늘 손녀처럼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은 객지생활을 하는 내게는 때로는 할머니고 또 엄마다. 수료식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공연이 있으면 오셔서 지도 해주시는 담당선생님께도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 어 보릿고개 같은 겨울이 빨리 지나고 새해 사업 공모가 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게 된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원들의 사정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라도 더 헤드리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사정을 일일이 설명 드리자니 미안하고, 한편 기다려주시는 마음은 감사하기만한...그러한 마음이 하나 되어 전해져서인지 올해는 다행히 지난해보다 공모일이 빠르다.
야호~! 거기에 사업평가 상위 50%에 드는 문화원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고 한다. 마침 공연 준비로 문화원







부평문화원 문화사업팀장 이소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원들의 사정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사정을 일일이 설명 드리자니 미안하고,
한편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감사하기만한...
그러한 마음이 하나 되어 전해져서인지
올해는 다행히 지난해보다 공모일이 빠르다.

에 오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어르신
들 덕분에 좋은 평가 받아서 내년에도 진행 할 수 있어요.”
올해 못다 한 것들 더 멋지게 만들어갈 생각에 흐뭇하다.

기획 할 때는 이것저것 욕심내서 열심히 생각하는데 막상
진행하다보면 다른 업무에 치여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 그래도 또 새로운 마음
으로 올해는 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꺼리”가 없나
싶어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좀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작년에 수료식 하면서 받았던 수기와 설문지를 쭉~
다시 훑어보게 됐다. 하나 같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
다.” 를 잊지 않고 적어주시는 어르신들의 글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

실버인형극단 은빛여울은 2007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4
년간 계신 분들부터 작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까지 현재
30여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보니 종종 선후배 간
에 배역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보통 어르신문화학
교는 4-5월경에 입학식을 하는데 매년 여름 춘천인형극제
에 참가 했다. 3개월 만에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다 보니 작품
의 완성도를 위해서 오래하신 선배 어르신들에게 중역이 맡
겨지는 것이 갈등의 주요인이었다. 단기간에 성장 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한편 너무 결과 중심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선후배가 없이 1기부터~3기까지 다 같
이 처음부터 하나가 되어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몇몇 어르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
언을 듣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개강부터 결과발표회

까지 인형극으로만 구성됐던 수업과정에 도입부프로그램을 10주정도 넣기로 했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주로 전래동화나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들을 만들어 오셨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한다. 알고 보면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전래동화보다 훨씬 재밌다.

춘천인형극제 참가기간에는 어르신들과 2박3일을 꼬박 함께 생활했었다. 그러면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을 이야기도 있고, 아-하고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는 배움도 많다.

막상 인형극의 주제로 만들자고 하면 부끄러워 손사래 치면서 "안 된다-난 못한다."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어 놓는 "판"을 만드는 것을 도입부 프로그램으로 넣었다.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차에 지나다 들렀다면 어르신 몇 분이 문화원에 오셨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올해는요~ 하면서 또 수다를 풀어 놓았다. 춘천인형극제참가 대신 다른 거 좀 더 배워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시다 ㅠㅠ.

그래도 힘을 내서!! 그 대신 그림도 그리고, 놀이도하고, 전시도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잠시 가우뚱 하시더니 "그래? 그것도 재밌겠지? 또 열심히 해봐야겠네~" 하시면서 좋아하신다. ... 휴=3 하고 다시 용기를 낸다. 그리고 그동안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했었

다. 무대 장치며 인형 등 많은 짐을 들고 차도 없이 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문화원 특성화사업 행동프로젝트(행복한 동아리가 행복한 동네를 만든다)와 연계해서 소극장 무대를 활용한 지역주민 초청공연들을 진행하려고 한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난다! ... 이렇게 계획서를 해서 제출했다. 올해는 구보조금 매칭 힘들게 돼서 예산이 좀 빠듯하겠지만 알뜰살뜰 살림하면 이만큼도 감사하다.

사업설명회도 건너뛰고 바로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 모두 어지간히 기다리고 있었나 싶어서 웃음이 난다. ...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남산으로 향했다.

이렇게 한 번씩 워크숍을 통해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좋다. 인사도 나누고 일하면서 어려웠던 일들도 나누고(?)

용기를 얻고 위안을 받는다.

실버인형극단 은빛여울의 "우동(우리동네) 한 그릇" 따 뜻한 이야기 한 그릇 후루룩~ 기대하며... 2011 은빛여울 파이팅!!입니다.

그들만의 저녁식탁

facebook

우리는 왜 페이스북 (Facebook)을 하는가

폐북하세요? 요즘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다.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 폐북, 페이스북의 줄임말이다. 폐북은 뭐며 SNS는 무엇인지 몰라도 비단 외부의 한때 유행만은 아닌 모양이다. 지방문화원의 곳곳도 들썩이고 있다. 폐북에서 논다면 쫘 노는 두 남자, 동해의 조연섭 국장과 대전 대덕의 임창웅 국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지역문화원

제2의 도약 필수 소통도구 페이스북 북
동해문화원 국장 조연섭

들어가는 말



본인은 문화원에 임용되기 전 방송생활을 하면서 방송 실장이라는 직책과 초고속인터넷팀장이란 직책을 함께 사용했다. 평소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서핑을 취미로 하던 본인에게 컴퓨터 박사인줄 착각하고 팀장이란 직책에 명한 것이다.

이후 본인은 직을 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다시야간대학을 다니며 체계적으로 디지털공학, 전자상거래, 1인 1미디어, 서버구축 등을 학습하며 초고속인터넷 팀을 이끌어오다 방송을 떠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웹 에이전시 벤처기업에 임원으로 몸담고 있을 당시 특히 싸이월드나, 유명메신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1인1미디어 사업을 진행했다. 몸담고 있던 회사가 개발한 B은행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회원전원에게 1인1미디어를 제공하는 등, 초기 1인 미디어 사업을 전개했던 경험관계로 싸이월드, 트위터의 장점들을 함께 적용시킨 페이스북을 통해 휴먼네트워크의 소통 도구로 전국의 문화원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활용하고 있으며 기본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왜 페이스북을 하는가 '지역문화원 제2의 도약 필수 소통도구 페이스북 북!

요즘 들어 화두가 된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뭐냐? 왜 해? 많이들 여쭙 보곤 한다. 먼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란 무엇인가? 부터 간단히 알아본다! "웹상에서 인맥관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라고 한다.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고도 부른다. 미니홈피도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의 한 종류지만, 개방성의 차이와 시스템적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 것들을 추가한 것이 페이스북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우선 이해하자면 먼저 트위터는 140자 이내에서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여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며 140자로 도대체 무얼 하나??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링크를 걸어 사진, 홈페이지,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페이스북의 필요성은](#)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 뿐 아니라](#)

[각 지역문화원의 사업의 연계와 홍보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폰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서비스연동으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폐북에](#)

[전국의 문화원 가족들이 가입해](#)

[정보를 교환해 주기를 바라며 가입한 가족들은](#)

[서로 친구로 모셨으면 한다.](#)

페이스 북과 미니홈피는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첫째로 개인 홈페이지란 것은 같습니다만, 미니홈피는 1촌 제도란 것이 있어 반개방형 이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완전한 개방형이다.

(물론 공개정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 게시물을 올렸을 때, 미니 홈피는 1촌이 아니면 홈페이지를 볼 수 없고, 설사 일촌이라도 100명의 일촌 중 평균 4~5개밖에 방문하지 않는다.

페이스 북은 일단 친구가 되면 자신의 홈페이지 메인에 본인을 포함한 전체 친구의 게시물이 인기 순, 최신순으로 보여 지며 한마디로 친구와 나만의 포털사이트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바로 페이스북이 이만큼 성장한 원동력 중 하나다.

그다음이 친구의 친구 시스템! 내가 친구를 맺게 되면, 그 친구의 친구까지 추천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

로 거미줄처럼 인맥이 엮이게 된다.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홈페이지 관리도 잘해야 하고, 자신을 어필해야만 한다! 왜 이런 번거로운 것을 해야만 하는지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은 1인 미디어 PR시대다.

정보의 공유가 전문가 체제에서, 1인의 체험담을 더욱 신뢰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서있는 당신을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페이스 북은 홈페이지를 무료로 꾸밀 수 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페이스 북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그 수도 더 많다는 것!! 그밖에도 페이지 등 다양한 포털 서비스를 능가하는 많은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교환 가능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모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온라인 소통' 강화를 직접 지시하면서 신설된 '온라인 대변인'은 "청와대도 네티즌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해야 한다" 던 뉴미디어비서관실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대통령과 훨씬 더 가까이에서 인간적 모습 그대로를 '소통' 하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다. 불필요한 오해를 걷어내고 싶었던 것. 아울러 '온라인 대변인'은 청와대를 시작으로 네티즌과 각 정부 부처 간 온라인 소통의 다리 역할을 구상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네티즌의 쌍방향 소통을 꿈꿨다.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미국의 경우 2011년 현재 트위터의 6배를 앞서고 있는 지금 문화로 소통하는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1인의 힘! 그 에너지와 파워를 믿으신다면 당장 가입 합시다~ 페이스 북!!

맺음말

한국의 문화원은 전국에 약 230여개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또한 문화원 조직은 원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의 국장과 과장(팀장)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세대 공감과 소통의 도구는 필수적인 단체이다.

함께 유관기관으로는 연합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의 문화원연합회, 그리고 각 지방 자치단체 등 그 어느 단체보다 소통과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단체가 문화원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회장은 개인적으로 단체의 회장이지만 본인과는 페이스 북 친구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직원(전명찬 부장, 박성우, 김태현, 이민아, 문선희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 정치인, 연예인 등 다양한 친구들과 권순석, 전고필 컨설턴트, 전국의 문화원국장 중에 대전 중구의 최창희 국장 서구의 송재민 국장, 서울 동대문의 강임원 국장, 대덕 임창용, 과천의 장경호, 속초 김인섭 국장과 양양의 최선미 간사, 강릉의 김유진 팀장 등 현장의 문화가족역시 페이스북 친구로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편지기능과 이메일 싸이월드, 블로그, 메신저, 트위터 등을 거치면서 페이스북의 경우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원의 직원으로서 임직원 간, 전국의 가족 간의 소통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큰 기대가 예상되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 중구의 최창희 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해문화

원의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을 접하고 지역의 사진 작가동호인들과 함께 강원도 동해 묵호등대담화마을 논골담길을 직접방문하고 결과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문화컨설팅 바라 권순석 대표역시 폐북 친구를 통해 전화 없이도 거의 일정을 파악할 정도로 문화 컨설팅 등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페이스북의 필요성은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 뿐 아니라 각 지역문화원의 사업의 연계와 홍보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폰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서비스연동으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폐북에 전국 문화원 가족들이 가입해 정보를 교환해 주기를 바라며 가입한 가족들은 서로 친구로 모셨으면 한다.

또한 연합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페이스북 정책서비스를 참고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 이름으로 폐북을 오픈하고 문화원가족과 기존의 홈페이지도 확장해 페이스북, 트위터가 연동해 장기적인 한국대표 문화포털서비스의 근간이기를 바라며 새로운 또 하나의 세상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에서 '소통'은 그 수단이 다양하다고 해서 충분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일방적인 주장이나 전달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바라본다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메시지, 다양한 프레임,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장임을 알고 기본적인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인정하는 에티켓이 지켜질 때 비로소 페이스북은 진정한 소통의 도구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참고: 문화원 가족 내부 공개용 책자이므로 일부 가족의 실명을 사용함을 양지바랍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게 바로 대세 임창웅(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나는 왜 페이스북을 하는가?를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고, 나는 왜 페이스북을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막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세'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홈페이지 이외에도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 등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모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블로그 등이 그 예입니다.

그 후로 소셜네트워크라 불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막강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그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불특정다수와 무언가를 공유하는 트위터보다는 친구 맺기를 통해 확인된 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버드대학에서 시작된 이 소통구조가 2010년 6월에 저와 만났습니다. 메일로 친구 요청이 왔는데 몇 차례 무시하고 지나다가 클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커뮤니티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시작을 하니 반가운 얼굴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잘 모르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공유하다가 어떤 기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꼭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로 만나는 친구들은 전에 문화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지역의 품앗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문화원과 연관된 이들입니다. 여러 국장님들과 컨설턴트 선생님들은 이곳에서 서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순간 컨설턴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된 이야기 소재는 소소한 가정사로부터, 개인적인 삶의 자양분에 대한 이야기, 문화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밖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정선 같다 왔다며?"라 얘기하더랍니다. 집사람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놀랐답니다.

제가 처갓집 다녀온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하고 같이 지역포털이 한발레즈 일을 하며 폐북친 구였던 집사람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팔볼출이 되어 아이들 그림도 올리고, 감 따기, 송편 빚기 등 동영상을 올려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 사는 이야기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이야기의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임창용
동아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동네 동아리들 다 모아 큰 잔치 번 벌어볼려고 했는데, 동아리들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떨것는가 하는 컨셉타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드는??? 여러 곳에 펼쳐 놓으면 기본 음향, 무대, 조명 등등은 어떻게 하나 하겠더니, 그런 것이 없이 해보자고 합니다. 조용한 축제... 마을의 구성구석에서 음향이 없이 행사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평가들이 나올까 자못 궁금해 집니다.

2010년 9월 10일 오후 11:27 · 좋아요 · 댓글 달기

2명이 좋아합니다.

Sunyoung Kim ㅎㅎ 부양동 작은 음악회 생각나네요... 내실있는 행사이지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

2010년 9월 11일 오후 10:04 · 좋아요

임창용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오전 10:10 · 좋아요

전명찬 참 여러가지 합니다^^ 기대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오전 11:56 · 좋아요

Dongho Shin 언플러그드 혹은 출간형 작은 음향만 사용하는... 조명이 필요하면 가로등 혹은 랜턴... 이런 축제 좋아요... 피포스, 해프링, 바스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집 마당에, 옥상에 갑자기 나타나 연주하기... 집에 난데없이 들어가 놀기ㅋㅋ... 놀아줬다 모아서 놀기.... 응원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오후 10:05 · 좋아요

임창용 아무리 생각해도 이듯형 작은 음향반비는 하나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마당에서, 옥상에서, 난데없이 마치 악기를 든 강도처럼...이런 생소듯하는 생각이란...

2010년 9월 17일 오전 10:36 · 좋아요

댓글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커뮤니티 이외에도 스스로 그룹을 만들거나 가입하여 관심사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페이스북의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저는 '일숲문화예술마당'이라는 문화예술인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금은 활동이 미미하나 뭔가 재미있는 것이 나올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원연합회도 그룹을 만들어 서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바로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국장님들을 페북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임창용
마을기업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잘 되어서 장동애 좋은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 오전 9:27 · 좋아요 · 댓글 달기

2명이 좋아합니다.

김향식 좋은 글과 기원합니다

2월 15일 오전 11:28 · 좋아요

전명찬 요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화두인가 본데, 문화역사마을이나 생활문화전송 등 마을을 기반으로 진행했던 사업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한발 늦어진다든 생각. 만나면 마을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2월 15일 오전 11:49 · 좋아요

조연성 마을기업 관심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말일은 온 곳에 난리인데.....! 생활문화공동체도 문화원에 있다면서요,

2월 15일 오후 12:44 · 좋아요

최향희 내일 송회준비는 잘 되거나요?

2월 15일 오후 11:19 · 좋아요

전명찬 잘되던 사업을 갖고 왔을뻔 더 잘해야 하는 부담감이 큼니다.

2월 15일 오후 1:24 · 좋아요

조연성 아마 그럴겁니다. 부장님의 조용한 카리스마로.. 잘 될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월 15일 오후 1:35 · 좋아요

전고필 수고 많으시네요.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2월 15일 오후 2:59 · 좋아요

임창용 김향식: 감사, 전명찬: 잘 배워서요. 조연성:동해 목호에 눈이 많이 왔을텐데, 머르신을 편찮으신지, 혹 국장님은 머피신지? 최향희: 선거도 치렀는데...전고필: 쌤: 감사합니다. 올해는 술을 좀 줄이시면 어떠실지 ^^

2월 15일 오후 4:36 · 좋아요

조연성 여러쪽인데 한국의 노래 같네요.- 드림하이-

2월 15일 오후 4:38 · 좋아요

장경호 마을기업이 어떤거래유, 국장님?

2월 16일 오전 11:39 · 좋아요

임창용 작년까지 버지니스커뮤니티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인데, 올해부터 이름이 마을기업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2월 16일 오후 3:15 · 좋아요

댓글을 입력하세요...

facebook

문화원 돋보기

성남문화원

제10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개최

_우리 고유의 전통 풍습을 전승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 마련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제10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시민 참가 행사로 연날리기(선착순 500명 '연' 무료 배부), 연날리기, 옷놀이, 팽이치기, 투호 놀이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부럼 박 깨기', '소원성취 글쓰기' 등의 민속 행사, 떡치기, 엮기 등의 다채로운 전통행사가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끝 행사로 오후 3시부터 「판교 널다리쌈용 거 줄다리기」시연이 있었다. 성남 판교 지역에서 예로부터 매년 대보름날 지역주민들이 마을 한 가운데 있는 회나무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 버리는 행사로,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로 중단됐다가 2009년 성남문화원이 보존회를 재조직하여 작년에 이어, 이 날 시연하게 됐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전승시키기 위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판교 널다리쌈용 거 줄다리기'를 통해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행사로, 이재명 시장, 장대훈 시의회 의장, 고흥길 국회의원 등 내빈 및 시·도의원과 시민 1천여 명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성남문화원

제92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_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제92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공원(분당 율동공원 내)에서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1부 식전행사는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의 '만세 길놀이'와 2부 기념식은 국민의례, 한춘섭 문화원장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성남3·1운동 약사보고', 시장·시의장의 경축사에 이어서 추념시 '만세 터에 서서(작시 한춘섭)'낭송과 추모공연 '비나리(조성란 무용가)', 3·1절 노래 제창(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만세 삼창으로 끝마쳤다.

성남문화원은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선생의 주도하에 주민 3,000여 명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던 분당구 율동역, 역사적인 만세운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3월 1일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제막했고, 매년「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갖는다.

평창문화원

정기총회

평창문화원(원장 고창식)은 2011. 2. 25. 금요일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오전 11시에 평창문화원 임원, 회원분 100여명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다. 많은 임원, 회원분들께서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평창문화원

‘산촌음식에게 말을 걸다’ 발간

평창문화원(원장 고창식)이 올해 어르신문화학교로 운영해 온 ‘산촌음식에서 문화를 찾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전통 산촌음식과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기록한 책자 ‘산촌음식에게 말을 걸다’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평창문화원이 어르신 문화학교로 지난 4월부터 미탄면복지회관에서 미탄면지역의 평창아라리 회원들이 참가해 지난 11월까지 매주 선보인 산촌음식을 소개하고 이에 얽힌 애환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집대성했다.

총 60쪽분량의 책자에는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도토리칼국수, 메밀국죽, 고구마죽, 곤드레밥, 콩죽, 옥수수 시루떡, 옥수수 마구설기, 옥수수 송편, 감자 두덕국, 울챙이 국수, 보래개떡 등 전래 산촌음식 22가지의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어려운 시절 산촌음식과 이에 얽힌 숨은 이야기, 삶의 애환들을 이야기로 풀어 써 놓아 읽은 이들에게 몽글한 감동을 전해준다.

특히 프로그램은 군내 다문화가정 주부들도 동참해 우리 전통 산촌음식을 배우고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시식하는 시간도 가져 함께 동참하고 화합하는 기회도 만들었다.

고창식 문화원장은 “잊혀 가는 우리의 옛 음식문화를 어르신들과 함께 논의하며 음식을 재현하고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을 옮겨 적었다”며 “사라져 가는 산촌음식을 재현하고 그에 얽힌 애환들을 집대성해 지역의 보이지 않는 역사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문화원은 ‘산촌음식에게 말을 걸다’ 책자 700권을 발간해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 등에 배포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95039>

부산 동래문화원

동래 3.1독립만세 재현행사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에서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충절의 고장인 동래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에게 애국·애항심을 함양하며 민족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코자 제92주년 3.1절 기념행사를 부산3.1독립운동 기념탑참배 및 동래고등학교 강



당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성원주 동래문화원장, 이진복 국회의원, 조길우 동래구청장, 동래문화원 임원진을 비롯한 여러 인사 및 일반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늦은 날씨에도 강당을 가득 메웠으며,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삼창, 연극, 학생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포천문화원

좋은책임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 소감문 시상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2월 23일 포천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하반기 좋은책임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문화원 임·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꿈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으므로 부디 큰 꿈을 갖으시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열심히 도전하시고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자들에게 “많은 독서와 사색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대한 성공자가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하반기 좋은책임기 독후감 공모에서 영예의 장원은 고등부 동남고등학교 송민주양, 중등부 동남중학교 김민주양, 초등부 축석초등학교 설수현양 외 총 46명이 차지했으며, 유적답사 소감문 공모에서 영예의 장원은 중등부 대경중학교 이지혜양, 초등부 추산초등학교 유수원양 외 총 38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포천문화원은 2011년에도 좋은책임기 운동 및 향토문화유적답사 사업을 활성화하여 독후감 및 향토유적답사 소감문을 연중공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포천문화원 ☎031-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이메일

kgpc1986@yahoo.co.kr)으로 문의 하면 된다.

포천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간담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2월 22일 향토사연구위원, 관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사 연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 향토사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매진 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향토사연구소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내년도 포천의 전통민속자료 발굴사업, 향토사 총람, 문화유적답사 등 향토사 관련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또한 내년에도 향토사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향토문화 정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 발굴 전승을 통한 현대문화 발전 방향 제고 등 한 단계 발전하는 문화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문화원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2월 25일 유림회관에서 서장원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윤순옥 의원, 문화원 고문 및 자문위원, 임,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원 발전에 공이 많은 전국회호대회 추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복성님, 그리고 시청에서 다년간 문화업무에 담당했던 송홍복 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는 물질적 성장 못지않게 정신

적 풍요를 추구하고 이룩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값진 목표이며 또한 이상, 이라고 말하고 「우리 포천문화원에서 이렇듯 아름답고 숭고한 문화의 꽃이 우리지역에서 그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매진 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 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감사보고와 사업실적 보고,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및 세입, 세출 예산 심의 등 문화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포천문화원 201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학교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비롯하여 향토문화연구사업, 제25회 반월문화제를 전국한시백일장, 전국회호대회 등과 연계하여 종합문화행사로 개최하고, 포천문화, 문화사랑 책자발간,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가족 시상송 경연대회 등의 행사와 전통 민속자료 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좋은 책 읽기운동 전개, 1사 1문화재 결연사업,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단운영,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등 올해의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선진문화의식 제고 등 한 단계 발전하는 문화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국문화원 연합회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포천문화원 정관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정관에 의거 증원된 임원을 선출했으며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부원장 : 전교육계원로 양운택, 전의료보험대표이사 김규돈, 경민대학교 교수 이준호, 포천시의회 의원 윤순옥, 전포천시 건설도시국장 이규환 / 감사 : 전포천향교 감사 정관진, 전가산농협 감사 류금열 / 이사 : 전포천문화원 이사 변진수, 전군내면 부면장 조병현, 전평통위원 이명숙, 화현면 자치위원장 이영주, 시립합창단원 박명숙)

올해 문화원 유적지 답사는 '2011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 와 함께
합천군은 우리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국보 제32호 합천해인사 대장경판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국보 제52호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등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을 통해 합천의 많은 유적지들을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융합하여 문화·예술자원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귀 문화원의 2011년 유적지답사 계획을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 2011년 9월 23(금) ~ 11월 6(일) / 45일간

장소 | 합천군 가야면 주 행사장, 해인사 일원

주최 |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지역문화자원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및 파일럿시스템 개발 사업 전국 228개 문화원 보유 및 발굴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활용 시스템 필요

지역 활성화와 내재적 발전을 선도할 아카이브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용역 및 파일럿시스템개발 추진

※ '11~'15년까지 지역문화자원정보화시스템(LCNet:Local Culture Net) 구축 및 확충

▶ 사업목적

- 우리문화 지식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향토문화자원 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문화원연합회의 정보시스템과 지방문화원들의 수집 자료들 간의 연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문화자원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및 파일럿시스템 개발 사업
- **주관기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기간** | 2011. 1~12
- **주요 내용**
지역문화자원 정보화시스템(LCNet) 구축/활용 방안 연구, 파일럿 시스템 개발
- **구축대상**
문화원 발굴 도서자료, 고문서, 영상 / 음성자료, 행사자료(리플렛, 초청장, 포스터 등), 민간생 활유물/기록 등

▶ 기대효과

- 국가 차원에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방문화원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 분산된 지역문화자원을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지역문화자원 관리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지방문화원 및 지자체가 발굴해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가치화함으로써 대중적인 확산 가능

문화원 사무국 임용

경기 화성문화원 교육사업 회원관리 권두봉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 대학원 수료
(재)경기문화재단 재직 · 이영미술관 재직
임용 2011. 3. 2

대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박천조

영남여자고등학교 교사 · 중국 심천국제학교 교감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겸임교수 · 유성문화원 감사
임용 2011. 3. 1

경기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승진) 김영길

이천문화원 총무과장(1993. 8.~ 2010.12.31)18년 재직
이천도자기축제 실무위원 · 이천평생학습축제 실무추진위원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위원 및 문화체육 분과장
이천쌀축제 실무운영위원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
이천거북놀이보존회청림 운영위원
임용 2011. 1. 1

사무과장(승진) 이미경

이천YMCA 과장 8년 재직
이천문화원 사무간사(2005.11.~2010.12.31) 5년 재직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성분과위원
임용 2011. 1. 1

총무간사 김성곤

평생교육진흥원 정보통신학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전산관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지원
임용 2011. 3. 8

전남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김영완

목포환경운동연합 간사(4년)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4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원
임용 2011. 2. 1

신임 원장



강원도지회장 원영환
 임기 | 2011. 2. 18 ~ 2014. 2. 20
 (전)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장
 (현) 강원항토문화연구회 회장
 (현) 의암학회 이사장, 회장
 (현) 강원도 도시편찬위원회 부위원장
 (현) 춘천문화원 원장
 (현)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자원개발
 지문위원



충북도지회장 장현석/재임
 임기 | 2011. 3. 6 ~ 2014. 3. 5
 청주대학교 겸임교수
 (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청주문화원 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제주지회장 정수현
 임기 | 2011. 2. 18 ~ 2014. 2. 17
 수필가 ·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한국신문학인협회 부회장
 서귀포문화원 부원장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지회 부설
 남원노인대학장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지문위원



서울 중구문화원 소수영
 임기 | 2011. 2. 28 ~ 2011. 8. 16
 (전) 명동 태평장학회 회장
 전) 중구문화원 이사 및 부원장
 (현) 한국양곡협회 중앙회 회장
 (현) 비르게살기운동중앙회 부회장



부산광역시문화원 배수신
 임기 | 2011. 02. 25 ~ 2015. 02. 24
 2002년 총경퇴직(명예정년)
 (현) 부산정보대학 경찰행정학과
 초빙 교수 (2003-현재)
 시민정신동호회 수석운영위원



광주 남구문화원장 성현출
 임기 | 2011. 3. 24 ~ 2015. 3. 23
 전) 제3,4대 광주남구의원
 전) 대동문화연구회 운영이사
 전) 대한일보 칼럼니스트
 전) 송원대학교 외래교수
 전) 조선대학교 초빙 객원교수
 (현) 남구문화원 이사
 (현) (주)한국축량원 사장



대구 달성문화원 차준용
 임기 | 2011. 02. 25 ~ 2015. 02. 24
 전) 한국음식업중앙회 달성군지부장
 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달성군지회장
 (현) 달성군생활체육협의회장



경기 부천문화원 박형재 / 재임
 임기 | 2011. 02. 22 ~ 2015. 02.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부천시 통일방위협의회 부의장



경기 과천문화원 이영구
 한국경기소리보존회 상임이사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부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추사연구회 운영이사
 한국효문화센터 이사



경기 남양주문화원 이용복
 임기 | 2011. 2. 27 ~ 2015. 2. 26
 대한적십자 경기지사협의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남양주시 지구협의회
 회장 역임



경기 시흥문화원 정상중 / 재임
 임기 | 2011. 03. 01 ~ 2015. 02. 28
 (현) 시흥문화원장
 시흥시의회의원 역임



경기 용인문화원 김장호
 임기 | 2011. 3. 15 ~ 2015. 3. 14
 용인문화원장 부원장
 범성 ENG 대표
 용인시의회 의원
 용천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성일산업(주) 대표이사



경기 양평문화원 이재찬 / 재임
 양평군재향군인회 회장
 양평군의회 의장



경남 거제문화원 원재희 / 재임
 임기 | 2011. 3. 16 ~ 2015. 3. 15
 (현) 거제문화원장
 (현) 거제문화예술회관 이사
 (현) 장승포신협 부이사장

퇴임 원장



서울 중구문화원 남상만
 (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현) 한국음식업중앙회장



광주 남구문화원장 이종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장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대구 달성문화원 전상호
 중앙대학교 연합 총동창회 상임이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



부산광역시문화원 김영실
 전) 부산시 북구, 강서구 정책지원위원
 부산시정자문위원
 (현) 가락 부산시 총친회 부회장



경기 과천문화원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추사연구회장
 한국 효문화 센터 이사장
 과천 학교전교



경기 남양주문화원 이청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원우회 이사
 성주건설 대표



경기 용인문화원 이종민
 영문의료재단 디보스병원 명예 이사장
 베트남 참전 전우회장

제26회 전국항토문화공모전

접수기간: 8.1 ▶ 8.31

주최: 한국문화진흥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문화진흥협회

전국 항토문화공모전

국내 유일의 26년 전통의 항토사 학술연구 공모전

2011 제26회 전국항토문화공모전 공모 요강

공모 부문 및 주제

- **공모부문**
 - 향토문화논문제문: 역사, 민속
 - 향토문화자료부문: 역사, 민속
 - 향토문화관련논문(영상)-다큐멘터리, 극영화, UCC 등
 - **공모주제**
 - 지역의 역사·민속·전통·향토문화·전통문화재
 - 현대적으로 재해석(문답조 부문)
- 응모 마감 및 수상작 발표**
- 접수기간: 2011년 8월 1일 ~ 31일
 - 수상작 선출발표: 2011년 9월 경
- 응모자격**
- 지원자격: 향토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학생
 - 2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반드시(필수) 공동연구응모가능
 - 지원제한: 본 공모전 대상 수상(최고 3명/간)
- 공모문양 및 작성법**
- 향토문화연구부문(논문), 향토문화조사부문(자료)
 - 문양: A4 108~210(가로)의 전용성 필름으로 자료를 기밀적 배제
 - 작성: 일정한 노를 차체에 맞게 작성(시도, 본도, 권별)
 - 향토문화관련논문(영상)
 - 문양: 10~60초 이내
 - 규격: 35mm/16mm 필름 및 HD, HDV, DV로 촬영하여 DVD로 제출

제출 서류 및 접수

- **제출 서류**
 - CD(원고), 출력을 거쳐 원고, 이력서(사내부적, 연락처)가 1부 DVD(영상)
 -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열거 판명하지 않음
- **접수 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처**
 위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제26회 전국항토문화공모전 담당(전화: 02) 704-2312

시상 내역

부 문	시 상	상 금	비 고
부문 없음	대상(국무총리상)	350만원	1번
향토문화 연구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수상(전국문화재단위원장상) 특별상(국사편찬위원회상)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	1번 1번 1번
향토문화 자료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수상(전국문화재단위원장상) 최우수상(한국문화원위원장상) 특별상(국사편찬위원회상)	2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1번 1번 1번 1번
합계		1,500만원	8

유의 사항(시상 내역 상영되는 용역외의 용역은 별도 제재)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1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2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3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4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5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6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7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8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9부 저음 재출성음부
- 국영 10대 디지털비디오(BD) 필름, 제10부 저음 재출성음부

* 모든 시상금 재정은 국민 후원금(문화체육관광부)과 민간 후원금(대한문화재단)에 의해 지원되며, 12월 중 시상금이 전액(80%) 지급됩니다. (잔금 20%)은 차년도에 지급됩니다.

